

최고참 김종민, 마침내 쿠리하라배 품다

올시즌 14승...심상철과 다승 선두 0.1초대 스타트 강점 '제2 전성기' 조성인 준우승·어선규는 3위 차지

38회차 경정은 오랜만에 팬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선사한 경주였다. 코로나 확산 이후 첫 특별경주가 열렸는데, 마침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쿠리하라배(구 울원배) 특별경정이었기 때문이다.

경정의 감자 심상철, 김민천이 플라잉 제재로 아쉽게 출전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조성인, 김종민, 박정아, 김민준, 김민길, 어선규 등 화려한 스타들이 대거 결승에 나서 치열한 레이스를 펼쳤다.

우승은 인빠지기를 시도한 1번정 조성인의 안쪽을 날카로운 찌르기로 파고든 2번정 김종민이 차지했다. 2018년 쿠리하라배 우승에 이어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했던 조성인은 준우승에 머물렀다. 3위는 아웃코스스의 불리함을 극복한 6번정 어선규에게 돌아갔다.

쿠리하라 특별 경정은 한국 경정의 스승이자 대부라 할 수 있는 쿠리하라 고이치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대회다. 2003년 울원배로 시작해 어느덧 19년째 열리고 있다. 상금 1000만 원도 크지만 그보다 한국경정의 오늘을 있게 한 대부격인 지도자의 이름을 건 경주여



15번이나 되는 대상경주 우승에도 불구하고 유독 쿠리하라배와 인연이 없던 김종민은 세 번째 결승 진출에서 마침내 수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다. 김종민이 시상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서 우승에 대한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경정 초창기에 쿠리하라 씨에게 직접 배웠던 1~3기 선수들에게 쿠리하라배 우승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그래서일까. 역대 우승자 대부분이 1, 2기 베테랑 선수들일 정도로 쿠리하라배는 고참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별경주이다.

하지만 경정 현역 선수들 중 최고참에 속하는 김종민은 쿠리하라배와 유독 인연이 없었다. 대상 우승만 무려 15차례에 달하는 그가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경주가 바로 쿠리하라배였다. 심지어 김종민은 쿠리하라배 결승에 진출한 경험도 몇 번 되지 않았다. 이번이 세 번째 결승 진출이다.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결승 진출에 성공했지만 우승을 차지하

는 데에는 실패했다. 세 번째 결승에 나선 이번 대회에서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됐다.

●올 시즌 꾸준한 활약, 그랑프리도 기대

김종민은 올 시즌 내내 기복 없는 꾸준한 활약으로 최강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현재 시즌 14승을 거두며 심상철과 함께 다승 부문 공동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번에 우승 상금 1000만 원을 보태면서 상금 부문에서 경쟁 상대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게 됐다. 전체성적도 가장 높아 올 시즌이 그의 '제2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김종민은 올해 눈에 띄게 스타트 집중력이 좋아졌는데 코스를 가리지 않고 0.1초대의 스타트를 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사전 스타트 제도와의 궁합이 잘 맞는 편이라 플라잉에 대한 부담을 덜며 경주를 풀어갈 수 있다. 최근의 기세를 고려한다면 연말에 그랑프리 경정이 열릴 경우 강력한 우승 후보다.

최근 몇 년 동안 심상철, 조성인, 김응선 같은 비교적 젊은 선수들이 미사리 경정을 주도했는데 올 시즌은 최고참급인 김종민, 김민천 등의 기세가 살아나면서 신구 강자대결이라는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KSPO 프로경륜 트랙팀 소속의 임채빈이 '2021 트랙 국가대표 선수 선발 평가대회'에서 역주를 펼치고 있다.

경륜대세 임채빈, 태극마크도 눈앞

트랙 대표선발전 200·500m 플라잉스타트 1위

KSPO 프로경륜 트랙팀의 임채빈이 19일과 20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2021년 트랙 국가대표 선수선발 평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선발전에는 27팀 69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KSPO 프로경륜 트랙팀'에서는 임채빈(경륜 25기), 정종진(경륜 20기)이 트랙 단거리 4개 종목(200m, 333m, 500m, 1000m)에 출전했다. 임채빈은 200m(9.749초)와 500m(26.357초) 플라잉스타트에서 1위, 333m와 1000m 스탠딩스타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 대한자전거협회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 곧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대표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며 이후 국제대회 포인트 획득여부에 따라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도 가능하다.

스피드온, 친구초대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스피드온(Speed-On)의 '친구초대 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 기존 회원의 권유로 새로 스피드온 회원에 가입할 때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면 추천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 각각 2000원(추천회원 최대 2만원)의 마일리지를 증정한다. 27일부터 시작하는 프로모션은 선착순 5000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회원의 신규 회원 추천은 최대 10명까지만 인정된다. 한편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스피드온 은행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던 외국인 등이 예치금을 충전(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소 가상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업장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재호·강진원 등 기세등등...달라진 청평팀

경륜 잇단 중고배당 이끌며 재평가 경륜위너스 "우수급에서 주목해야"

최근 경륜 출주표를 보면 김포, 동서울, 청평, 세종, 수성팀이 다수를 차지한다. 매 회차 지방 교차경주를 포함해 80여 명이 경주에 나서는데 전체 출전선수 중 50% 이상을 이들 훈련지역 선수들이 차지한다. 한 경주에 같은 팀 소속 2~3명이 나서기도 한다.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작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부 관객이 입장하면서 오프라인 발매도 이루어져 경륜 팬들의 감응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지역 선수들의 행보는 경주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 훈련팀 중 상대적으로 다소 박한 평

가를 받던 곳이 청평팀이다. 특선급이 다수인 다른 팀과 달리 청평팀에는 특선 멤버가 김시후(33세 S3급)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 8월부터 재개된 경주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해 경륜 팬들 사이에서는 편성의 구색을 갖추는 역할이라는 냉소적인 의미로 '깍두기팀'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런 청평팀이 요즘 달라지고 있다. 17일 부산 우수결승 3경주에 강진원(32세 A1), 이기주(29세 A1), 조재호(39세 A2) 등 무려 3명이 진출해 강진원의 선행을 조재호가 추입하면서 쌍승 58.6배, 단승 27.0배의 중고배당을 낳았다.

함께 출전한 이기주도 조주선행임에도 4위를 했다. 이날 경주에는 특선에서 강등된 이수원(41세 A1), 이홍주(44세 A1)가 있었지만 청평팀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조재호 강진원

앞서 8일 광명 우수 1경주에서는 김범준(34세 A2), 이우정(40세 A3)이 나란히 1, 2위로 들어오면서 쌍승 29.8배를 기록했다. 4일 창원 선발전2경주에서는 인기(배당) 순위 4위였던 이일수(40세 B2)가 선행으로 1위를 해 쌍승 61.4배, 단승 16.2배의 주인공이 됐다. 9월 26일 창원 우수2경주에서는 인기순위 꼴찌였던 청평팀 노장 이규봉(46세 A2)이 2위로 994.1배의 고배당을 탄생시켰다.

청평팀은 총 23명으로 코로나 휴장 공백

을 거치면서 팀 규모가 커졌다. 그 결과 매 회차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다. 결출한 스타급은 없지만 특선급 김시후 외에 우수급(17명 70%)이 주류로 허리를 맡고 있다.

부상에서 돌아온 결승급 전력 강진원, 이기주를 비롯해 선행력이 돋보이는 손재우, 제 기량을 회복 중인 김범준(훈련부장), 조재호, 최근영 등 무게감이 느껴지는 멤버를 갖추고 있다. 훈련지부장 이상현과 과거 특선멤버 최대용 그리고 부상 회복 중인 이유진 등은 앞으로 입상권이 예상되고 이외에 선발전 이일수가 부활 중이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청평팀은 코로나 휴장 공백으로 인해 훈련량이 부족했고 8, 9월에는 부상선수들도 많았지만 이후 팀원들이 하나 둘 복귀하면서 팀 훈련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경륜팬 입장에서 하루 경주 중 승부처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수급에서 집중적으로 봐야할 팀이다"라고 전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바둑·생활체육

신진서·박정환, 삼성화재배 바둑 나란히 4강 진출

박정환, 오늘 자오천위와 4강 맞대국 신진서는 내일 양딩신과 결승행 다툰다

2:2. 26일 정오부터 한국(서울 한국기원)과 중국(베이징 중국기원)에서 온라인 대국으로 펼쳐진 2021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8강전에서 한국과 중국이 각각 2명씩을 4강에 올려 보냈다.

8강전은 한중대국 세 판, 한국선수끼리의 대국 한 판으로 진행됐다. 랭킹 1, 2위 신진서와 박정환이 각각 한승주와 중국 쉰샤오를 꺾고 4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동훈과 이창석은 중국의 자오천위와 양딩신에게 불쾌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8강 진출자 중 가장 먼저 승전보를 전한 선수는 신진서였다. 신진서는 한승주와의 형제 대결에서 158수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2년 연속 4강행을 확정지었다. 신진서가 비교적 손쉽게 승리한데 비해 박정환은 기적 같은 역



신진서 9단



박정환 9단

전승을 거두고 7년 만에 네 번째 삼성화재배 4강에 진출했다.

8강 직후 열린 조추첨에서 신진서는 양딩신, 박정환은 자오천위와 대결하게 됐다. 박정환은 27일, 신진서는 28일 정오에 출격한다. 상대전적에서 박정환은 자오천위에게 4승 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진서는 양딩신에게 4승 5패로 밀리고 있다.

한편 이번 8강전은 원래 25일 두 판, 26일 두 판의 대국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으

나 25일 전국적인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인해 이창석·양딩신, 신진서·한승주의 대국이 26일로 연기됐다.

한국은 2014년 김지석의 우승 이후 6년 연속 중국에 우승컵을 내줬지만 이번 대회 4강에 신진서와 박정환이라는 최강의 '원투펀치'가 진출해 7년 만의 우승컵 탈환에 청신호를 밝히게 됐다. 2021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의 우승상금은 3억 원, 준우승상금은 1억 원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대한체육회,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통해 비대면 교육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간·쌍방향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과 동시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지도활동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5일까지 진행된다.

매년 개최되는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은 지역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전문성, 지도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고 지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매우 유익한 교육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형태로 진행된다.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된 LMS(지도자 교육 관리 시스템)를 통해 사전질문 → 교육 수강 → 만족도

조사 → 교육 수료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수혜자 확대를 위해 실시간 교육을 듣지 못한 지도자에게도 11월 5일까지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교육 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자체 교육을 포함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확보 및 지도활동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교육을 발판삼아 다양한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을 통해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인 '스포츠7330'(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기)을 전파함으로써 전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역 생활체육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